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179-193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179

KJHD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남녀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in Early Adolescents: The Moderated Mediation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Friend Support

1차원고접수: 2026.04.03. 수정원고접수: 2026.05.25. 최종게재결정: 2026.09.19.

조민영[1] · 임정하[2]
[1]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석사
[2]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Jo, Minyoung[1]
Lim, Jungha[2]
[1]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남녀 중학생 1, 2학년 32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독립표본 t 검증과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한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로 표본을 분리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났으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방안을 모색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작용함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사회불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초기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friend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among early adolescents. A total of 322 adolescents in the 1st and 2nd grades of middle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d moderated mediation Model 14 in the Process macro for SPSS. Girls reported higher level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than boys, whereas no gender differences found for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or friend support. Testing the model within each gender group showed that, for girls,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associated with greater social anxiety indirectly through higher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this indirect effect was weaker when friend support was higher. For boy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not supported.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peer support may buffer the social anxiety risk associated wit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via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articularly among girls, underscoring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prevention efforts that targe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trengthen supportive peer relationships.

Keywords *social anxiety,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friend support, early adolescents*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6)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임정하(Lim, Jungha)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jhlim@kore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로 사회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사회불안을 경험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Spence & Rapee, 2016). 사회불안이란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에 대해 현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22). 사회불안의 약 75%가 8세에서 15세 사이에 시작하며, 주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3세 전후에 많이 나타난다(APA, 2022). 청소년기 사회불안은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의 어려움, 감정조절 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권석만, 2023; Sackl-Pammer et al., 2019). 이에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관련된 특성을 탐색하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의 기제를 설명하는 자기제시 이론(self-presentation theory)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려는 욕구가 높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내적인 신념이 낮을 때 사회불안을 경험한다(Schlenker & Leary, 1982). 특히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높은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욕구가 좌절되기 쉽다(Hewitt, Habke, Lee-Baggley, Sherry, & Flett, 2008). 이로 인해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면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Hewitt et al., 2003). 이때,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안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지지적인 관계는 개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수용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제시 실패에 대한 사회불안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Schlenker & Leary, 1982).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성향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을 받은 경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Chen et al., 2012).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가하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부모의 기준을 내면화하게 된다(Baumrind, 1991).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자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하정희, 2017; 홍은실, 2021). 즉,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이 높으면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감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불안에 대한 127편의 국내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석지은, 이소연, 2018)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회불안 위험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개인 외적 요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Xia, Olsen, McNeely, & Bose, 2012). 선행연구들(이혜인, 이영애, 2021; 주리애, 하정희, 2019; Barber, Harmon, 2002)에 의하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을 자주 경험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후기 청소년기에 비해 정서적 독립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부모의 양육방식을 더욱 민감하게 지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배효숙, 홍혜영, 2017), 이 시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불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통제 연구(Barber & Harmon, 2002)에 따르면,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통제 방식이나 그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청소년 자녀 양육에서 주로 돌봄의 주체이며(안명희, 신희수, 2012),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크게 지각하였다(기효정, 홍혜영, 2016; 이은경, 박성연, 2011; Luebbe, Bump, Fussner, & Rulon, 2014).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쳤

다(김현옥, 2025; 박효정, 박주희, 2015; Roman, Mwaba, & Lens,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의 기존 특성만으로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완벽을 추구하는 욕구와 같은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초점을 둔 완벽주의와 달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와 같은 표현적 욕구에 초점을 두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고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나 태도를 의미한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완벽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대인관계에서 완벽하게 보이려는 특성을 보인다. 선행연구들(전소영, 2021; 최주희, 이동현, 2023)에 따르면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Blatt, 1995). 이에 자녀는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아지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회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하정희, 2017; Flett, Coulter, & Hewitt,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한 초기 청소년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고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근태, 박은민, 2024; Kostelecky & Lempers, 1998; Wills, 1990).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소년이 현실과 목표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사회적 지지는 이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Sarason, Pierce, & Sarason, 1990). 이들의 연구(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에 따르면, 평가적 우려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한 친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중요한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상희, 2015; Fredrick, Demaray, & Jenkins, 2017). 친한 친구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가까운 유대감을 느끼며, 일상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친구를 의미한다(Furman & Buhrmester, 1992). 초기 청소년기에는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보내며, 이 시기에는 관계의 중심이 부모에서 친구로 이동하기 때문에 친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동안 지각된 부모지지, 교사지지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친구지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한유진, 최나야, 2004; Furman & Buhrmester, 1992). 친구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을 완화한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Fredrick et al., 2017). 그러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아진 초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친구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불안 발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사회불안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회불안(기효정, 홍혜영, 2016;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La Greca & Lopez, 1998)과 친구지지(최인숙, 2012; Cheng & Chan, 2004)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곽다미, 신나나, 2021; 최지영, 2020; Bacikova-Sleskova, Barbierik, & Orosová,

2024)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박승혜, 이승연, 2019; 박지혜, 이주영, 2018; Hewitt et al., 2011)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박효정, 박주희 2015; 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박지혜, 이주영, 2018). 또한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남녀가 지각하는 친구지지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Rose & Rudolph, 2006).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사회불안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재확인하고 이들 간 관련성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사회불안 간 관계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남학생 표본과 여학생 표본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친구지지가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임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2-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2-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중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기 청소년기는 이전 발달단계에 비해 또래 및 타인의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고 사회불안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보고된다(양재원 등, 2008; Amies, Gelder, & Shaw, 1983; Morris & Masia,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발달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1, 2학년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1학년 남학생은 70명(21.8%), 1학년 여학생은 78명(24.2%)이었으며, 2학년 남학생은 89명(27.6%), 2학년 여학생은 85명(26.4%)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사무직 111명(34.4%), 현장・기술직 83명(2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사무직 124명(38.5%), 서비스・영업직 81명(25.2%), 무직 67명(20.8%)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통제 척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 (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기반으로 Barber 등(2012)

이 청소년의 관점을 직접 반영하여 문항을 재구성한 Psychological Control Disrespect Scale(PCD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김도아와 최은실(201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이다. 예시 문항으로는 '어머니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김도아와 최은실(2019)은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다.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 등(2011)이 개발한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Junior Form(PSPS-Jr)을 하정희 등(202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요인(9문항)은 자신의 완벽함을 대인관계에서 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등이 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요인(3문항)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실수 및 결함들이 대인관계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 친구들이 나의 단점에 대해 하나라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요인(3문항)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실수 및 결함들을 타인 앞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늘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은 은폐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하정희 등의 연구(2020)에서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0로 나타났다.

3) 친구지지 척도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Maleck와 Demaray(2002)가 개발한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CASSS)을 김남경(201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친구지지 하위요인만 사용하였다. 친구지지(9문항)는 친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 자원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 친한 친구는 나의 기분을 이해해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긍정문 중심의 척도는 동의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Suarez-Alvarez et al., 2018)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편향을 줄이기 위해 4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로부터 긍정적인 자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김남경의 연구(2019)에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88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2로 나타났다.

4) 사회불안 척도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 Greca와 Lopez(1998)가 개발한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SAS-A)를 양재원 등(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8문항)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등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걱정한다.' 등이 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5문항)은 친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에 대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 등이 있다.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5문항)은 새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불안, 불편감, 걱정 등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과만 이야기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재원 등의 연구(2008)에서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K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IRB-2025-0295-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설문지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8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안내하여 협조를 구한 후 우편으로 연구참여 설명서와 모집공고문, 설문지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담임교사를 통해 패키지를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해 문의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참여 동의서와 승낙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학생과 협조 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322부(94.4%)를 실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9.0와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사회불안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 4.2(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남학생 표본과 여학생 표본을 분리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인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종속변인에 사회불안, 매개변인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조절변인에 친구지지를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친구지지를 평균과 평균±1 표준편차로 나누어 조건부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의 성차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표본과 초기 청소년의 성별로 표본을 분리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초기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 = -1.66, p = .10).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여학생 집단의 평균(M = 3.15, SD = 0.82)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M = 2.78, SD = 0.92)보다

표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전체 (n = 322)	남학생 (n = 159)	여학생 (n = 163)	t	Cohen's d
	M (SD)	M (SD)	M (SD)		
어머니 심리적 통제	2.52 (1.09)	2.42 (1.15)	2.62 (1.01)	-1.66	0.1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2.97 (0.89)	2.78 (0.92)	3.15 (0.82)	-3.75***	0.42
친구지지	2.92 (0.77)	2.86 (0.77)	2.98 (0.77)	-1.43	0.16
사회불안	2.92 (0.87)	2.86 (0.94)	2.98 (0.79)	-1.24	0.14

***p <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3.75, p < .001, Cohen's d = 0.4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중간 효과 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지지는 초기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 = -1.43, p = .15). 사회불안도 초기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24, p = .22).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성별로 표본을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두 변인 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친구지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끝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친구지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 간 상관은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조절변인인 친구지지가 주요 변인들과 단순상관 수준으로 크게 결합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조건부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부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친구지지의 수준은 평균, 평균 ±1 표준편차로 나누어 각각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1	2	3	4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47**	.13	.14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2**	-	-.01	.17*
3 친구지지	-.11	-.05	-	-.43**
4 사회불안	.17*	.20*	-.44**	-

주. 남학생 표본(n = 159)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학생 표본(n = 163)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p < .05. **p < .01.

1) 남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남학생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친구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38, p < .001). 둘째,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 = .09, p = .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 .48, p < .05). 반면 친구지지는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20, p = .3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B = -.13, p = .08). 이는 남학생의 친구지지 수준이 높거나 낮더라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도 -0.05(SE = 0.04), 95% CI [-0.12, 0.02]로 0을 포함하여 남학생 집단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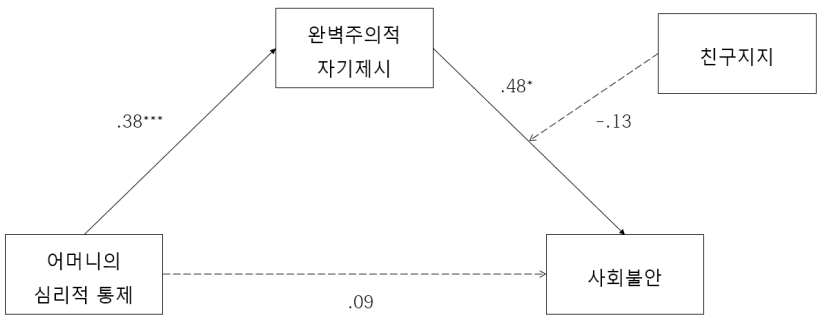
2) 여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여학생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친구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34, p < .001). 둘째,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

표 3. 남학생 집단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N = 159)

종속변인	경로	B	SE	t	$adjR^2$	F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38	.06	6.91***	.23	47.76***
사회불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09	.07	1.42	.24	11.9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8	.22	2.17*		
	친구지지	-.20	.21	-0.9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친구지지	-.13	.07	-1.78		

*p < .05. ***p < .001.



*p < .05. ***p < .001.

그림 1. 남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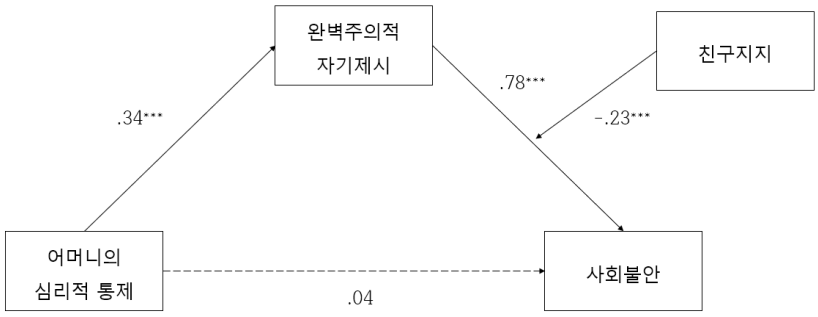
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 = .04, p = .5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 .78, p < .001). 반면 친구지지는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34, p = .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B = -.23, p < .001).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학생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가 친구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여학생 집단에서 조건부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친구지지의 수준을 평균과 ±1 표준편차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여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친구지지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수준에서 조건부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24, p < .01). 반면, 친구지지가 평균 수준(B = .06, p = .41)과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B = -.09, p = .34)에서는 조건부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지지가 낮은 수준일 때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친구지지가 보통이거나 높은 수준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표 4. 여학생 집단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N = 163)

종속변인	경로	B	SE	t	$adjR^2$	F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34	.06	5.82***	.17	33.92***
사회불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04	.06	0.64	.29	16.1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78	.19	4.18***		
	친구지지	.34	.22	1.5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친구지지	-.23	.06	-3.67***		

***p < .001.



***p < .001.

그림 2. 여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표 5. 여학생 집단에서 친구지지 조건값에 따른 조건부 직접효과의 검증

	조건값	B	SE	t	LLCI	ULCI
친구지지	M-1SD	.24	.08	3.19**	.09	.39
	M	.06	.07	0.83	-.09	.21
	M+1SD	-.09	.10	-0.96	-.28	.10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1.

는 친구지지가 충분히 높은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완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자료는 그림 3과 같다.

나아가, 여학생 집단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로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조건부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즉, 조절된 매개지수는 -.08로 나타났고,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이 -.15, 상한값이 -.0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과정에서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특히, 친구지지가 낮은 조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러한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와 변인간 관련성을 확인한 후, 남학생과 여학생 표본을 분리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각각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이론적 해석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변인의 성차를 검토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친구지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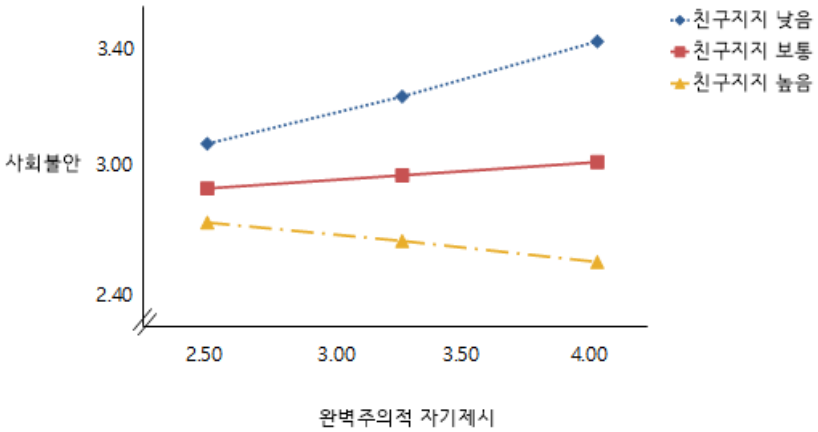


그림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표 6. 여학생 집단에서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LLCI	ULCI
-.08	.04	-.15	-.01

결점을 감추고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박승혜, 이승연, 2019; Haferkamp, Eimler, Papadakis, & Kruck, 2012)과 일치한다. 선행연구는 여학생이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Malat, Van Ryn, & Purcell, 2006; Pliner, Chaiken, & Flett, 1990; Rui & Stefanone, 2013),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Hewitt, Flett, & Mikail, 2017). 따라서 여학생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불완전한 모습을 숨기고 완벽한 이미지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성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의 경우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여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사회불안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연쇄적 영향은 친구지지가 평균 또는 그 이하인 조건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에게서 친구지지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약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제시이론(Schlenker & Leary, 1982)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자기제시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의 평가를 통제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상을 유지하려 하며, 결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평가불안과 사회불안이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흠 없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과도한 관리 전략으로 기능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이러한 자기제시 압력을 높임으로써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학생에게 친구지지가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 이 경로가 두드러진 결과는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지지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이미지 관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완충되지 못해 사회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성별 차이는 청소년기의 관계 기능 및 사회화 맥락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남학생은 정서적 교류보다는 활동 중심의 관계를 선호하고, 친구관계에서도 감정적 지지나 공감보다는 함께 행동하거나 성취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Kuttler, La Greca, & Prinstein, 1999). 따라서 친구지지가 제공되더라도 그것이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정서적 자원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여학생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절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은 또래관계 내에서 감정표현이나 자기노출에 소극적일 수 있어(Chaplin & Aldao,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한 불안을 친구관계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내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여학생은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를 중요시하며,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를 자신의 가치와 안정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인식한다(Rose & Rudolph, 2006). 또한 여학생은 또래 관계에서 관계의 질・평가・수용 여부를 민감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Rudolph, 2002), 친구관계에서 지지가 부족할 때 완벽하게 보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불안과 자기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친구지지가 평균수준 이하로 낮은 여학생들에게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로 사회불안을 높이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반대로 친구지지가 높은 조건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경로가 약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여학생은 사회적으로 관계 유지와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완벽하게 보이려는 자

기제시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남학생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화되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다(Barber & Harmon, 2002; Rudolph, 2002). 따라서 동일한 심리적 통제 상황에서도 여학생은 평가불안이 두드러지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반면, 남학생은 자율성 손상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여학생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평균 수준이 더 높고, 동시에 친구지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더 두드러지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불안 위험 과정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사회불안 예방을 위해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완화하는 인지·정서적 접근과 함께, 또래 관계에서 수용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구지지 자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여학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표현과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및 자율성을 지지하는 접근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여학생에게는 정서적 유대 증진과 관계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개입이, 남학생에게는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기술을 강화하며 자율성 손상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접근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 8개 중학교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국내 초기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 유형을 포함한 표집을 통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행동과 측정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친구지지의 경우 모두 주관적으로 지각된 경험에 기반하므로 실제 양육행동이나 객관적 지지 수준과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이나 관찰 등의 자료를 병행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지지 수준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교사지지 또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지지 역시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조절된 매개과정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성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곽다미, 신나나 (202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1), 451-476. https://doi.org/10.21509/KJYS.2021.11.28.11.451

권석만 (2023). **현대 이상심리학 3판**. 서울: 학지사.

기효정, 홍혜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3), 85-99.

김근태, 박은민 (2024). 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1(4), 475-494. https://doi.org/10.21509/KJYS.2024.04.31.4.4

김남경 (2019). **초등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사회적 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아, 최은실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개정판(PCDS) 타당화 연구. **발달지원연구**, 8(2), 15-37. https://doi.org/10.22839/adp.2019.8.2.15

김현옥 (202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승혜, 이승연 (2019).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2(1), 105-126. https://doi.org/10.35574/KJDP.2019.03.32.1.105

박지혜, 이주영 (2018).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반추에 대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4), 87-107. https://doi.org/10.15703/kjc.19.4.201808.87

박효정, 박주희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21-39.

배효숙, 홍혜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8), 27-54. https://doi.org/10.21509/KJYS.2017.08.24.8.27

석지은, 이소연 (2018). 아동·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4(3), 225-250. https://doi.org/10.33770/JEBD.34.3.11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https://doi.org/10.15842/kjcp.2008.27.4.005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이혜인, 이영애 (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4), 307-338. https://doi.org/10.21509/KJYS.2021.04.28.4.307

전소영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희 (2015).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리애, 하정희 (2019).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0(1), 95-123. https://doi.org/10.14816/sky.2019.30.1.95

최인숙 (2012).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정서경험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1), 135-160.

최주희, 이동현 (2023). 중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7), 49-49.

최지영 (2020). 동기체계와 지각된 어머니의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6(3), 49-62. https://doi.org/10.33770/JEBD.36.3.3

하정희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관계에서 정서 억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183-208. https://doi.org/10.21509/KJYS.2017.11.24.11.183

하정희, 최기현, 이유경, 이재연, 차경환, 방성일 (2020). 한국판 청소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K-PSPS-Jr)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7(5), 193-225. https://doi.org/10.21509/KJYS.2020.05.27.5.193

한유진, 최나야 (2004).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상황 귀인 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363-384.

홍은실 (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PA Press. https://doi.org/10.1176/appi.books.9780890425787

Amies, P. L., Gelder, M. G., & Shaw, P. M. (1983). Social phobia: A comparative clinical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2*(2), 174-179. https://doi.org/10.1192/bjp.142.2.174

Bacikova-Sleskova, M., Barbierik, L., & Orosová, O. (2024). Perceived parental control,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3*(5), 1632-1646. https://doi.org/10.1007/s10826-023-02643-8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915.x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22-002

Barber, B. K., Xia, M., Olsen, J. A., McNeely, C. A., & Bose, K. (2012). Feeling disrespected by parents: Refining the measurement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35*(2), 273-287.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1.10.010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https://doi.org/10.1177/0272431691111004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 https://doi.org/10.1037/0003-066X.50.12.1003

Chaplin, T. M., & Aldao, A. (2013).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in children: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9*(4), 735-765. https://doi.org/10.1037/a0030737

Chen, C., Hewitt, P. L., Flett, G. L., Cassels, T. G., Birch, S., & Blasberg, J. S. (2012). Insecure attachmen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disconnection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8), 936-941. https://doi.org/10.1016/j.paid.2012.02.009

Cheng, S. T., & Chan, A. C. (2004).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Dimensionality and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359-1369. https://doi.org/10.1016/j.paid.2004.01.006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 https://doi.org/10.1037/0022-0167.47.4.437

Flett, G. L., Coulter, L. M., & Hewitt, P. L. (2012).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Junior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ssociation with social anxiety in early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7*(2), 136-149. https://doi.org/10.1177/0829573511431406

Fredrick, S. S., Demaray, M. K., & Jenkins, L. N. (2017).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internalizing problems: Do teacher and classmate support matter?.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7*(7), 975-1003. https://doi.org/10.1177/0272431616636231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2.tb03599.x

Haferkamp, N., Eimler, S. C., Papadakis, A. M., & Kruck, J. V. (2012).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self-present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2), 91-98. https://doi.org/10.1089/cyber.2011.0151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Y: Guilford publications.

Hewitt, P. L., Blasberg, J. S., Flett, G. L., Besser, A., Sherry, S. B., Caelian, C., Papsdorf, M., Cassels, T. G., & Birch, S. (2011).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junior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23*(1), 125-142. https://doi.org/10.1037/a0021147

Hewitt, P. L., Flett, G. L., & Mikail, S. F. (2017). *Perfectionism: A relational approach to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https://doi.org/10.1037/0022-3514.84.6.1303

Hewitt, P. L., Habke, A. M., Lee-Baggley, D. L., Sherry, S. B., & Flett, G. L. (2008). The impa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erience of a clinical interview. *Psychiatry, 71*(2), 93-122. https://doi.org/10.1521/psyc.2008.71.2.93

Kostelecky, K. L., & Lempers, J. D. (1998). Stress, family social support, distress, and well-being in high school senior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7*(2), 125-145. https://doi.org/10.1177/1077727X980272002

Kuttler, A. F., La Greca, A. M., & Prinstein, M. J. (1999). Friendship qualities and social-emotional functioning of adolescents with close, cross-sex friendship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3), 339-366. https://doi.org/10.1207/S15327795JRA0903_5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https://doi.org/10.1023/A:1022684520514

Luebbe, A. M., Bump, K. A., Fussner, L. M., & Rulon, K. J. (2014).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s to adolescent anxiety through deficits in emotion regula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 565-576. https://doi.org/10.1007/s10578-013-0425-3

Malat, J. R., Van Ryn, M., & Purcell, D. (2006).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positive self-presentation in health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62*(10), 2479-2488.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5.11.014

Malecki, C. K., & Demaray, M. K. (2002).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CASS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1-18. https://doi.org/10.1002/pits.10004

Morris, T. L., & Masia, C. L.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452-458.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704_9

Pliner, P., Chaiken, S., & Flett, G. L.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ncern with body weight and physical appearance over the life s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263-273. https://doi.org/10.1177/0146167290162007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https://doi.org/10.1177/02724316032

Roman, N. V., Mwaba, K., & Lens, W. (2012). Pre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Determining the association wit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ty and Health Sciences, 7*(2), 1-8.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98. https://doi.org/10.1037/0033-2909.132.1.98

Rudolph, K. D. (200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4), 3-13. https://doi.org/10.1016/S1054-139X(01)00383-4

Rui, J. R., & Stefanone, M. A. (2013). Strategic image management online: Self-presentation, self-esteem and social network perspectiv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6*(8), 1286-1305. https://doi.org/10.1080/1369118X.2013.763834

Sackl-Pammer, P., Jahn, R., Özlü-Erkilic, Z., Pollak, E., Ohmann, S., Schwarzenberg, J., Plener, P. L., & Akkaya-Kalayci, T. (2019). Social anxiety disorder and Emotion regulation problems in Adolescen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3*, 1-12. https://doi.org/10.1186/s13034-019-0303-7

Sarason, I. G., Pierce, G. R., & Sarason, B. R. (1990). Social support and interactional processes: A triadic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4), 495-506. https://doi.org/10.1177/0265407590074006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 https://doi.org/10.1037/0033-2909.92.3.641

Spence, S. H., & Rapee, R. M. (2016). The etiology of social anxiety disorder: An evidence-based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86*, 50-67. https://doi.org/10.1016/j.brat.2016.06

Suárez-Alvarez, J., Pedrosa, I., Lozano Fernández, L. M., García-Cueto, E., Cuesta, M., & Muñiz, J. (2018). Using reversed items in Likert scales: A questionable practice. *Psicothema, 30*(2), 149-158. https://doi.org/10.7334/psicothema2018.33

Wills, T. A. (1990). Multiple networks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1), 78-90. https://doi.org/10.1521/jscp.1990.9.1.78